

“결사는 낡고 때 묻은 옷 벗는 일”

결사추진본부, 중앙종무기관·부설기관 대중공사

“개인과 종단이 입은 낡고 때 묻은 옷을 벗고 빠는 것이 자성결사요, 묵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일이 바로 쇠신결사다.” 종단 차원의 자성과 쇠신 결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범스님)는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교역직 스님·차팀장 총무원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3원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종무원이 참석한 대중공사는 자성과 쇠신 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추진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결사뿐 아니라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고 동력으로 삼을 제언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 마당이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 도범스님은 ‘결사대중의 확고한 대비원력의 발심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결사의 전면목을 옷으로 비유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도범스님은 “부처님은 삶의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는 절 안에만 있어 정작 중생이 필요한 곳에는 부각해도 응답하지 못해왔는데 이것이 낡은 옷”이라고 지적하며 “새 옷을 입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정작 낡고 때 묻은 옷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결사의 핵심은 ‘대비원력의 발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도범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내 안락과 행복, 내 절과 집단, 종단의 발전에만 중심을 뒀었다”며 “부처님이 오직 중생과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살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내고 결심하는 것이 이번 결사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구심체인 조계종 총무원 구성원들이 결사에 대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결사대중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도범스님은 “부처님처럼 가자”고 제안했다. “결사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자신의 행복과 안락, 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대중들은 결사의 필요성에 재차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발원하면서 △종단 차원의 정규 제정 △한국불교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 △사부대중 수준에 맞는 눈높이 결사 방안 마련 △재가종무원 수행 및 신행 교육프로그램 강화 △종교평화 교육교재 개발 및 지역별 종교평화센터 건립 등을 제언하며 시종일관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결사위원인 우희종 교수는 스님들이 검침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중생을 섬기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우 교수는 “이번 결사의 본질은 중생을 위한 보살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섬기는 보살처럼 스님들이 ‘승상(僧相)’을 버리고 중생을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결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리하는 발언을 통해 총무원들의 ‘주인의식’을

“부처님이 오직 중생과 세상의 안락·행복위해 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핵심”

“부처님이 오직 중생과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살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내고 결심하는 것이 이번 결사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구심체인 조계종 총무원 구성원들이 결사에 대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결사대중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도범스님은 “부처님처럼 가자”고 제안했다. “결사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자신의 행복과 안락,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현재 결사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다”며 “1년 혹은 2년 후에는 씩이 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재가종무원이 가장 힘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단의 진짜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결사 추진에 있어 방해된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를 하고 있다”며 “시대에 부응하

는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노력하자”고 결사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대중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10월11일에는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일반직 종무원 토론회를 열고 미래 로드맵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도범스님은 “논의하는 자체가 정범이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라며 “사부대중이 결사를 추진하는 동반자와 동반으로서 신뢰와 애정을 쌓도록 대중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0월7일 현재) 본지는 종무원 토론회도 상세 보도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TIP 대중공사

대중공사(大衆公事)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승가 교유의 전통적인 의결 방식이다. 대중공사는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승단의 모든 대중들이 모여서 평등한 참여권과 자유로운 발언권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결정하는 공동체 회의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원 총무부 입구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출가자 수행·포교 전념하도록 제도 확충”

‘조계종 승려복지회’ 출범 … 현판식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영담스님)는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원 총무부 입구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주관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로서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회장을, 총무국장 현담스님이 사무국장을, 총무부 차장과 팀장, 행정관 등이 사무국을 맡게 됐다.

현판 제막, 격려사, 펼책단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현판식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승려복지회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정만스님, 재무부장 도문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교육부장 범인스님, 포교부장 계성스님, 정책특보담당장 정영스님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업무시작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차원의 승려노후복지가 시행착오와 반론 등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야 시행하게 됐다”면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은 책임지고, 출가수행자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가 더욱 더 확충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26일 제주 관음사 산중총회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원종스님)는 오는 26일 오후1시 경내 선센터에서 차기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23교구 재적 스님과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인 비구 스님, 23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스님 등이다. 본사 주지 임후보자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대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임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18일 오후5시까지다. 허정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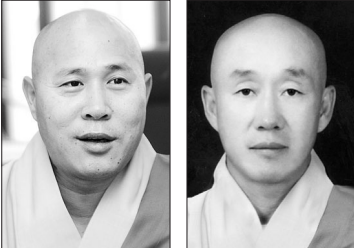
한글 반야심경 <전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결림이 없고 결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위없는 주머니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머니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번)

은해사 종회의원 장적·덕조스님

선관위 ‘범일스님 자격 없음’



장적스님 덕조스님

임후보자 자격문제로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진 뒤 1년 남짓 공석으로 남아 있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장적스님과 덕조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243차 회의를 열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은해사 재선거 임후보자 가운데 범일스님을 뺀 태관스님과 장적스님, 덕조스님만 후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태관스님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자격 결정 이후인 지난 6일 교구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투표 없이 장적스님과 덕조스님을 선출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제243차 회의에서 총무원 총무부가 범일스님은 구축계를 수계한

사실이 없다는 신원조화 결과를 지난 15일 통보해옴에 따라 격론 끝에 후보자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은해사 주지 둔관스님은 5일 성명을 통해 “잠시 화합의 근본 뜻을 잊은 채 사부대중께 우려의 누를 끼쳤다”며 “이번 선거는 장적·덕조 후보로 단일화하여 화합대중을 이루고자 한다. 태관 스님도 이에 동참하여 여법하게 교구본사의 위상을 세우기로 했다. 은해사는 교구본사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며, 승가공동체 화합의 장으로 거듭 발전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승려복지제도 시행안내 및 의료·요양비 지원 신청 접수 공고

승려복지제도 시행목적

승려복지제도의 시행은 우리 종단 출가 종도로 하여금 수행자의 본분사인 보살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승려복지의 종단적 시행은 우리 종단 소속 모든 스님의 복리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스님들이 수행정진, 전법교화, 종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려복지제도의 주요내용

■의료비 지원

- 무소속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만65세 이상의 스님들의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 본인부담액 50%와 선택진료료 50%를 승려복지회(종단)에서 지원합니다(승납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비 지원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요양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시설급여 인정) 판정을 받은 세납 만 65세 이상으로서 종단 협약 요양시설에 입소한 스님의 장기요양 급여대상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상급실 이용 비용은 제외)의 50%를 승려복지회(종단)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비 지원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우리 종단의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모든 승려는 종단 등록사찰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지스님의 동거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사찰과 기관, 교구본사 등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2만원 이하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 종단 소속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찰에서는 사찰거주 대중(소임자 및 거주자로서 사찰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지역 국민연금 사무소에 국민연금 가입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사찰과 기관, 교구본사 등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3만원 이하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수행연금 지급

- 무소속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만65세 이상의 스님으로서 수행연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스님은 수행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납에 따라 차등지급)
- 수행연금 지급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의료·요양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원 신청

- 위 지원 조건에 맞는 스님은 의료비 지급신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승려복지회(총무원 총무부)로 신청합니다.

■요양비 지원 신청

- 위 지원 조건에 맞는 스님 및 보호자는 요양비 지급신청서, 요양비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승려복지회(총무원 총무부)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문의 : 승려복지회(총무원 총무부) 담당 02-2011-1726, 팀장 2011-1710 Fax 02-720-3302 신청양식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개시 : 2011년 10월 4일부터

불기2555(201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승